

# 위그노 전쟁과 프리드리히 3세의 활약

이남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며
- II. 배경: 개혁파의 등장과 제국의 갈등
- III. 위그노 상황과 독일의 반응
- IV. 위그노 2차 전쟁과 팔츠의 참전
- V. 위그노를 위한 프리드리히 3세의 활동
- VI. 나가며

**[초록]**

대개 종교개혁은 국제적 연결고리를 제외하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층적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종교개혁 상황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위그노와 독일 개신교 제후들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1560년대 프랑스 내부의 갈등은 팔츠 개혁파의 등장으로 복잡해진 독일 내 개신교 상황과 시기적으로 프랑스 위그노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제국내 개혁파가 등장하는 독일 개신교 상황을 이해하되 그 국제적 관계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츠의 종교개혁 상황, 개혁파의 등장, 그리고 제국 안과 밖의 개혁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려고 한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있다. 그의 의미가 단순히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라는 신분으로서 위그노 지지자였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즉, 제국 내에 그와 같은 고위 신분이 개혁신앙의 지지자로 있다는 사실이 위그노에게 실질적 힘이 되었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그 외에 제국의 이전 개신교는 오직 루터파만을 지칭했으나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파를 받아들인 후 제국에는 개혁파와 루터파 두 종류의 개신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독일과 위그노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이 점에서도 프리드리히 3세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교개혁을 국제관계 안에서 더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를 중심으로 팔츠의 개혁파의 등장, 위그노 전쟁 및 팔츠의 참전, 프리드리히 3세의 위그노 지지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키워드:** 프리드리히 3세, 하이델베르크, 위그노, 독일 종교개혁, 프랑스 종교개혁, 위그노 전쟁

논문투고일 2024.01.05. / 심사완료일 2024.02.26. / 게재확정일 2024.03.05.

## 1. 들어가며

경건자 프리드리히 3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조국과 모든 나라의 아버지요 보호자요 지지자<sup>1</sup>

위 문구가 1559년부터 1576년 선제후령 팔츠를 다스렸던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 von der Pfalz, der Fromme, 1515-1576)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프리드리히 3세는 팔츠 선제후로서 팔츠 교회에 개혁신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유명하나, 그의 팔츠 밖의 개혁파를 위한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후 신성로마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제국은 본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만을 제국 내 공인된 종교로 인정했으나 프리드리히 3세가 칼뱅주의라는 다른 종교를 들여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 팔츠 선제후는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면서 팔츠에 개혁주의를 들여왔을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제국 밖 프랑스에서 위그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개혁파와 경쟁하던 루터파 입장에서 프랑스 위그노는 경쟁하는 적 개혁파인가, 아니면 핍박받는 개신교 형제인가, 또는 칼뱅주의의 특징으로 소문난 대로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자인가? 개혁주의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프리드리히 3세는 위그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했을까? 반역자로 알려진 위그노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제후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그에게 해가 되진 않았을까? 제국 밖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개혁파 형제들을 위하여 참전하는 것이 정당한가? 제국 밖의 전쟁에 관해 통치자와 신학자는 어떤 견해 차이를 갖는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3세는 어떻게 위그노에게 도움을 주었을까? 이 질문들은 종교개혁을 한 지역의

\* 본 글은 '제7회 프랑스 위그노 연구회 정례회 (2023년 2월 16일, 소망교회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논문 양식에 맞춰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1 "Fredericus III. pius ... Patriae et omnium nationum, quae Christum profitentur, pater, protector et fautor." Neumüllers-Klauser, *Die Deutschen Inschriften Die Inschriften der Stadt und des Landkreises Heidelberg* (Stuttgart: Druckemueller, 1970), 140.

종교개혁 즉 독일의 종교개혁이나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국제 관계 아래서 보게 하며,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종교개혁의 알려지지 않은 면들을 들여다보게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폄박받는 위그노의 상황을 프랑스 내 종교개혁의 관점이 아니라 제국 밖의 개혁주의 세력에 대한 독일 개신교 제후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주목받지 못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sup>2</sup> 이를 위하여 독일의 개혁주의 정치가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프랑스 위그노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고찰한다. 먼저 이 글은 팔츠의 개혁파 신앙이 황제와 루터파의 반대에도 제국에서 인정받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로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경쟁하는 제국 내 정세를 확인한다. 둘째, 1567년 위그노 2차 전쟁 발발 직전까지 위그노 상황에 대한 독일 제후들의 반응 특히 프리드리히 3세가 중요한 위그노 관련 사건들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정리한다. 셋째, 위그노 2차 전쟁 발발했을 때 프리드리히 3세의 참전 승인을 가능하게 했던 상황, 전쟁에 대한 다양한 해석, 참전에 대한 다양한 판단들을 고찰할 것이다. 넷째, 위그노 전쟁 참전 외에 프리드리히 3세가 폄박받는 형제 위그노를 돕기 위해 한 일들을 정리한다.

## II. 배경: 개혁파의 등장과 제국의 갈등

1563년 프리드리히 3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팔츠 교회법을 반포하

<sup>2</sup> 판 톨은 방대한 자료를 살펴본 뒤 위그노 전쟁이 전형적으로 프랑스 국내 분쟁으로 여겨져 왔음을 언급한다(Van Tol, *Germany and the Coming of the French Wars of Religion: Confession, Identity, and Transnational Rel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rk, 2016]: 13-16). 주로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적 경향, 그리고 둘째 연구자들의 상황 곧 사료와 언어가 프랑스 국내 문제로 다룰 때 용이하다는 점이다. 판 톨에 의하면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L. Romier, *Les Origines Politiques des Guerres des Religion*, [Geneva: Slatkine- Megariotis Reprints, 1974]; N. M. Sutherland, *The Massacre of St Bartholomew and the European Conflict, 1559- 1572* [London: Macmillan, 1973]), 정치 권력가들의 야망의 관점에서 보려한다는 점에서 종교개혁과 위그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신앙 문제를 간과하는 한계를 갖는다.

면서 개혁파의 길을 공식적으로 걸어가게 된다. 그러나 바로 루터파 편에서 팔츠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제후 크리스토프는 1563년 3월 팔츠의 학교와 교회에서 칼뱅주의 교리가 퍼져 있다는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임을 상기시키면서, “게다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과 모순되는 다른 모든 분파들과 마찬가지로 칼뱅주의도 종교 평화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고<sup>3</sup> 썼다. 팔츠 선제후의 특사를 통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전달받은 페르디난드의 아들이자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2세는 프리드리히 3세를 위협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요리문답서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모든 곳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세례와 성만찬 교리에서 츠빙글리의 견해를 따르고 있으므로 종교평화조항에 위배된다”라고 썼다.<sup>4</sup> 그해 7월 황제 페르디난드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칼뱅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sup>5</sup> 1566년 1월에 열린 제국회의에서 팔츠의 칼뱅주의는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황제 막시밀리안 2세의 주도 아래 뷔르템베르크의 크리스토프와 츠바이브뤼켄의 볼프강이 팔츠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sup>6</sup> 프리드리히 3세는 황제와 제후들 앞에서 행한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자신의 신앙을 보였으며 자신이 나움부르크 제후회의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3 “Zu dem ist Calvinismus wie auch alle andere secten wider die Augspurgische confession von der religionsfrieden ausgeschloss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376.

4 “... der Ketchismus nicht überall mit der Augsburgischen Confession übereinstimme, und der Zwinglischen Opinion namentlich in der Lehre von der Taufe und dem Abendmahl anhang und daher auch den Bestimmungen des Religionsfriedens entgegen sei.” 프리드리히 3세의 방대한 편지를 정리한 Kluckhohn은 이 편지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헤페의 인용을 따른다.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398-399.

5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Kurfürsten von der Pfalz, mit Verwandten Schriftstücken*, Bd. 1, 419ff.

6 Walter Hollweg, *Der Augsburger Reichstag von 1566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Entstehung der Reformierten Kirche und ihres Bekenntnisse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1964), 36f.

에 서명한 일을 언급하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진술했다. 연설이 끝난 후 작센의 선제후 아우구스트는 “프리지, 자네가 우리 모두 보다 경건하구만”이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sup>7</sup> 아우구스트는 팔츠의 칼뱅주의에는 반대했으나, 동시에 제국 내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했다.<sup>8</sup> 프리드리히 3세는 아우구스트에게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독일에도 닥쳐 결국 루터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됨을 고했다.<sup>9</sup> 아우구스트는 제후들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거절하면서, 동시에 팔츠의 칼뱅주의에도 침묵하기를 택했다.<sup>10</sup> 작센 선제후 아우구스트는 프리드리히 3세가 제국회의에서 내치질 경우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려했다.<sup>11</sup> 결국 팔츠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서 제외시키려던 황제의 시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개혁신앙이 선제후령 팔츠의 공식적 지위를 확보한 일은 결과적으로 독일 밖의 개혁파, 특히 위그노를 위한 지지 세력의 확장을 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지지 세력이 독일 내에 확보되었다는 것 이상이었다. 선제후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 자신의 진실한 신앙으로 개혁파 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과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개혁파 신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독일 내에 드리웠던 개혁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상쇄될 가능성을 의미했다. “루터교 제후들은 여전히 다소 의심하고 있었지만, 프리드리히의 개종과 개혁주의 입장에 대한 그의 변호는 프랑스 위그노와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길을 열었다.”<sup>12</sup> 결과적으로 개혁파

7 Hollweg, *Der Augsburger Reichstag von 1566*, 344.

8 Derk Visser, *The Reluctant Reformer His Life and Times* (New York: United Church Press, 1983), 142f.

9 Hollweg, *Der Augsburger Reichstag von 1566*, 377.

10 Volker Press, *Calvinismus und Territorialstaat, Regierung und Zentralbehörden der Kurpfalz 1559-1576*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70), 237.

11 Charles D. Gunnoe Jr., “Die Geschicht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im Umfeld der Pfalz,” in *Handbuch Heidelberger Katechismus*, eds., Arnold Huijgen & John V. Fesko & Aledida Sill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14), 61.

12 “Although the Lutheran princes remained somewhat suspicious, the conversion of Friedrich and his defence of the Reformed position paved the way for successful cooperation with the Huguenots in France.”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72f.

신앙을 가졌던 프리드리히 3세나 그의 아들 카시미르와 같이 위그노 지지자들이 등장할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루터파 제후들 중에서도 위그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예로 대표적인 개혁파 반대자이던 루터파 제후 츠바이브뤼켄의 볼프강은 3차 위그노 전쟁에서 위그노를 위해서 참전한다.<sup>13</sup>

### III. 위그노 상황과 독일의 반응

독일은 1567년에 발발한 위그노 2차 전쟁부터 참전한다. 그럼에도 이전부터 제국의 제후들은 프랑스의 상황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는 위그노에 대한 독일 제후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이, 특히 프리드리히 3세가 2차 전쟁 발발 전까지 중요한 위그노 관련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본다.<sup>14</sup>

#### 1. 나움부르크 제후회의(1561년 1월)와 위그노에 대한 제후들의 견해

이미 1561년 독일 제후들이 모였던 나움부르크 제후회의(Naumburger Fürstentag)에서 루터파 제후들은 프랑스의 불안한 상황을 논의했다. 여기서 루터파 제후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프랑스에서 위그노와 로마 가톨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루터파 제후들은 츠빙글리주의를 경계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프랑스에 소개하기를 원했다. 가장 적극적

<sup>13</sup> 팔츠의 칼뱅주의에 반대한 루터주의자였으나 위그노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으며 개신교 내에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건 헌신으로 받아들여져서 칭송되었다. 다음을 보라: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202ff.

<sup>14</sup> 위그노의 상황은 다음을 보라: Alison Grant & Ronaldo Mayo, *The Huguenots* (Longman, 1973), 조병수 역,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 (용인: 가르침, 2018); Janet Glenn Gray, *The French Huguenots Anatomy of Coura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위그노 전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연대기적 서술은 다음을 보라: James Westfall Thompson, *The Wars of Religion in France 1559-1576*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9). 양신혜, “베자의 국가 저항권에 대한 이해”, 『갱신과 부흥』 24호(2019), 89-95.

인 인물은 뷔르템베르크의 크리스토프였다.<sup>15</sup> 회의에서 프랑스와 영국과 스위스의 개신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츠빙글리주의와 칼뱅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절되었다. 한편 뷔르템베르크의 크리스토프는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츠빙글리주의에 물들기 전에 프랑스에 적극적으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작센 선제후 아우구스트는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제네바를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에 반대했다.<sup>16</sup> 이후 1561년 8월 프리드리히 3세는 크리스토프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프랑스 위그노에 보내려고 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편지를 썼는데, 왜냐하면 프랑스의 새로운 이들이 “이 신앙고백서나 저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복음과 선지서의 바르고 참된 기초 위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신앙고백서에 썼을 때에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

프리드리히 3세는 프랑스의 갈등이 심각하며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1561년 5월 위그노 지도자였던 콜리니 제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에 있는 복음 전파에 격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보존되니 육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특히 그는 독일 개신교가 큰 열심으로 연맹하여 싸웠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경험을 상기시킨다.<sup>18</sup> 이것은 1546년과 1547년의 슈말칼텐 전쟁을 말한다.<sup>19</sup> 1561년 프리드리히 3세는 복음을 위하여 영적 무기로 싸울 수 있으나 육적 힘을 강화하여 무력으로 싸운다는 생각에 부정적이었으며 인간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1560년대 초의 무력사용을 반대한 그의 생각이 1567년 전후에 바뀌어 참전을 변호하게 된다.

15 Friedrich Barthold, *Deutschland und die Hugenotten* (Bremen: Verlag von Franz Schlodtmann, 1848), 337f.

16 Calinich, *Der Naumburger Fürstentag*, 382f.

17 “... nicht auf einer oder der andern Confession, sondern vielmehr auf rechtem wahren Hauptgrund der evangelischen und prophetischen Schriften geschehen müsse; denn wenn man sich auf Confessionen stütze, sei Gefahr, daß sie zur Bedrängniß der armen Christen mißbraucht werden möcht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195.

18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178ff.

19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67.



## 2. 푸아시 회담(1561년 9월)과 제후들의 대표단 파송

로마 가톨릭의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 진영을 약화시키거나 억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에게 염려가 되었다.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세력도 트리엔트 공의회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로마와 거리를 두었던 프랑스 로마 가톨릭의 흐름에 따라 카테린 드 메디씨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공의회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도 트리엔트 공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카테린 드 메디씨는 미셸 드 로피탈, 앙투안 드 부르봉, 샤를 드 로렌과 함께 트리엔트 공의회를 대체할 회의를 계획했다.

1561년 9월 푸아시 수녀원 식당에서 이 회담이 열렸다. 11살이었지만 프랑스 왕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이 회담에 권위가 부여되었다. 로마도 대표단을 보냈고 독일 개신교 제후들도 대표단을 보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 이 회의의 목적이었다. 개혁파 쪽에서 12명의 목회자와 20명의 평신도가 참석했으며 베자가 대표자였다. 9월 7일 베자의 긴 첫 발언은 개혁파의 성만찬 이해가 어떤 점에서 가톨릭과 다른지 그리고 개혁파 교리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었다. 9월 16일 로레인 추기경이 가톨릭을 대변해서 말했다. 3일 뒤에 교황이 보낸 이단이 도착했다. 교황은 푸아시 회담에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대표단을 보냈으며 프랑스도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여하기를 바랐다. 로레인은 베자에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서명하기를 제안했는데, 베자는 거절했다. 베자와 위그노는 이 제안이 합의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루터파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베자는 로마가톨릭의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말했고, 교황 대표단은 위그노 목사들을 늑대, 여우, 독사, 암살자라 불렀다.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이 보낸 대표단이 도착하기 전에 회의는 끝났다.

독일 개신교 대표단에는 뷔르템베르크의 크리스토프가 보낸 야콥 뵘러린(Jakob Beurlin)과 야콥 안드레애(Jakob Andrea)와 발타자르 비템바흐

(Balthasar Bidembach)가 있었고, 프리드리히 3세도 미하엘 딜러(Michael Diller)와 피터 보갱(Peter Boquin)을 보냈다. 크리스토프는 이 회의에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프리드리히 3세는 크게 확신이 없었다.<sup>20</sup>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푸아시 회담은 폐막하여 참여하지 못했다. 게다가 슬픈 일도 있었는데, 대표단 중 비를린은 파리에 도착한 후 여행 중에 얻은 여독으로 병이나 죽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프리드리히 3세가 보낸 이들은 위그노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었다. 보갱은 나바라 왕과 일행을 만나고 교제한 이야기를 프리드리히 3세에게 보고한다.<sup>21</sup> 처음에는 뷔르템베르크 대표들과 팔츠의 대표들은 함께 일하려 했으나 이후 목표가 다른 것이 나타나자 따로 활동하게 된다. 뷔르템베르크 대표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프랑스에 소개하고 받아들여지게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으나 팔츠의 대표들은 이미 위에서 프리드리히 3세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뷔르템베르크 대표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프랑스에 소개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고 콜리니 등 위그노 대표들도 만나고 까뜨린느 앞에까지 설 수 있으나 위그노와 프랑스 왕실 모두 루터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답했다.<sup>22</sup>

### 3. 생제르맹 칙령(1562년 1월)과 프리드리히 3세의 기대

푸아시 회담으로 합의에 이를 가망이 없음이 드러나자 까뜨린느의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이었다. 결국 1562년 1월 잠정적으로 개신교 예배를 허용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1월 칙령 또는 생제르맹 칙령(édit de tolérance de Saint-Germain)이라 부르는 이 명령을 따르면 위그노의 예배가 몇 가지 제한을 갖고 허용되었다. 위그노는 그동안 차지한 예배당을 반환해야 했으며, 성벽이 있는 곳 즉 도시의 예배는 허용이 안 되며, 예배드릴 때 무장할

20 "... wir dem künig zu Franckreych solten noch folgen oder ime auf sein nationalconcili unsere theologos schicken, das wolt bedencklich seyn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169.

21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217.

22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35.

수 없고, 예배는 낮에만 허용된다(2조, 5조). 왕의 관리들이 요청하면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예배 참석자의 신원을 조사할 수 있다(3조). 천주교에 대한 모독 언사는 범죄이며(10조) 성상을 파괴하거나 금서를 배포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sup>23</sup> 예배가 허용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그노에게 불리한 규정이 너무 많았다. 반면 가톨릭 편에서 이 칙령은 위그노에 대한 승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분노했다. 게다가 파리 의회는 이 칙령의 등록을 거부했으며 위그노 전쟁의 계기가 되는 바시(Vassy)의 학살이 있는 후에야 채택되었다. 즉, 까뜨린느의 의도와 달리 이 칙령으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위그노 예배에 대한 첫 공식적인 승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대가 있었다. 바시의 학살 후에 프리드리히 3세는 프랑스 왕과 카테린에게 서신을 보내 이 칙령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는 ‘1월 칙령’으로 복음이 프랑스에서 진전함에 대한 기쁨을 표하면서, 이 칙령에 대해 반기를 들어 프랑스에 닥친 일에 슬퍼하면서도 ‘1월 칙령’이 프랑스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표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이 칙령으로 복음의 순수함을 따르는 자들이 안전할 수 있고 박해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24</sup>

#### 4. 위그노 1차 전쟁과 독일의 제후들

생제르망 칙령은 불행하게도 1562년 3월 바시(Vassy) 대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시의 창고에서 예배드리던 위그노 수십 명을 학살한 후 유사한 일들이 뒤따랐는데, 상스(Sens)에서는 100명의 위그노가 학살당해서 시체가 세느강에 던져졌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위그노 살해가 계속되었다. 결국 위그노

<sup>23</sup> Nancy Lyman Roelker. *One King One Faith: The Parlement of Paris and the Religious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263.

<sup>24</sup> “Or depuis ie a ouy que le roy vostre filz a fait publier un edict par lequel ceux qui ont volonté de suyvre la purité de levangile sont mis en seureté de sorte quilz sont hors de crainte de persecutio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278.

는 확실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점령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작한 1차 전쟁은 1563년 3월 앙부아즈 칙령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시기는 제국 내에서 개혁파가 등장하여 개혁파와 루터파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초판이 발행되던 1563년 3월에 위그노 1차 전쟁이 끝났다. 개혁파의 공식적인 등장에 맞서 루터파 제후들은 프리드리히 3세에게 칼뱅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했으며 프리드리히 3세는 개혁파의 정당성을 호소하던 때다. 제국의 루터파 제후들의 생각은 복잡했다. 왜냐하면, 개신교인으로서 루터파 제후들은 가톨릭에 맞서야 했으며, 동시에 이제 막 등장한 개혁파와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 밖 위그노는 가톨릭의 박해 아래 있으나, 동시에 자신들과 갈등하고 있는 칼뱅주의 편이었다. 예를 들어 가장 자주 서신으로 외교를 시도한 대표적인 제후인 크리스토프는, 프랑스의 가톨릭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가톨릭의 폭력을 비판했으며 위그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반란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왕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썼다.<sup>25</sup> 이 정도가 당시 독일 제후들이 위그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제후들 대부분은 참전을 비판했으며 일차적 관심은 제국의 평화였다. 독일 제후들은 전쟁을 한차례 치른 후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가운데 있었다. 이런 경험을 한 제후들은 혹여 프랑스 내전이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안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sup>26</sup>

다만 츠바이브뤼켄의 볼프강의 경우가 독특하다. 그는 강한 루터주의자였고 개혁파를 싫어했으며 몇 년 후인 1566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프리드리히 3세에 반대하고 팔츠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서 제외시키려던 대표적 제후다. 1563년에도 볼프강은 칼뱅주의 반대자였으나, 위그노를 동정했으며 위그노를 위해서 프랑스로 군대를 이끌고 가고자 했다. 여러 제후들이 한 목소리

<sup>25</sup> Van Tol, *Germany and the Coming of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96ff.

<sup>26</sup> Van Tol, *Germany and the Coming of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94.

로 반대하자 포기하였다.<sup>27</sup> 루터파 제후인 크리스토프도 반대했을 뿐 아니라 개혁파인 프리드리히 3세도 1563년 3월 볼프강에게 긴 편지를 보내 출정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권했다. 긴 분량의 서신에서 프리드리히 3세는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을 동정하면서도 전쟁이 독일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반대하며 독일 제후들의 우려와 참전 반대를 보여준다.<sup>28</sup>

이때 하이델베르크는 위그노 전쟁의 정당성을 독일 내에 알리는 전초지역 역할을 했다. 1557년 바젤에서 하이델베르크 온 인쇄업자 루드비히 루시우스는 1562년 콩데의 선언을 몇 주가 안되어 독일어로 알린다. “청명하고 고귀한 제후 보르봉의 루드비히 콩드공의 첫 번째 진술과 보고. 무슨 이유로 프랑스 왕국의 위엄과, 그 치리가 여왕에게 있는바, 또한 왕국의 일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는지”와<sup>29</sup> “프랑스 왕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폭동의 기원과 원인을 밝히는 콩데 공의 다른 진술”의<sup>30</sup> 제목으로 콩데 공 자신의 무력저항의 정당성을 알린다. 이 인쇄물에 따르면 왕의 명령에 반하여 무장으로 저항하는 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콩데 공은 무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하이델베르크는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랐으나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강경한 루터파 제후들은 프리드리히 3세와 팔츠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박해받는 위그노의 모습을 동정하면서, 독일 내에서 불안한 지위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프랑스의 동료 신앙인들에게 투영하기도 했다.<sup>31</sup> 그러나 2차 전쟁이 발발하기

27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96.

28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379-389.

29 *Erste Erklärung und bericht des Durchleuchtigen Hochgebornen Fürsten un[d] Herren, Herrn Ludwigen Hertzogen von Borbon, Herrn von Conde, auß was ursachen ire F. G. die königliche Würden in Franckreich, deßgleichen die Regieru[n]g so der Königin zustehet, und dan[n] auch den gemainen friden un[d] rhu desselbigen Königreichs zuschützen und zuhandthaben ist bewegt worden : Sampt angehängter irer Fürstlich Gnaden Protestation* (Heidelberg: Ludwig Lucius aus der Wetterau, 1562).

30 Louis de Condé, *Andere erklärug des Hertzogen von Conde/ in welcher die anfänger und ursächer diser jetzigen empörung in disem Königreich Franckreich offenbare: und was iren F. G. bißher zu hinlegung derselben fürzunemen gebürt hat/ und noch gebüren will/ angezaigt wird* (Heidelberg: Ludwig Lucius aus der Wetterau, 1562).

전까지 프리드리히 3세의 선택사항에 참전은 아직 없었다.

#### IV. 위그노 2차 전쟁과 팔츠의 참전

위그노 1차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제후들은 안타까움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지라도 프랑스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향한 위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제국 밖 프랑스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자신들이 참전한다는 생각은 제후들의 선택사항에 올라와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1567년에 발발한 2차 전쟁에는 독일 제후들이 참전하게 된다. 이때 팔츠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위그노 1차 전쟁에는 참전에 반대했던 프리드리히 3세는 왜 2차 전쟁에는 참여했는가? 국제적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또는 참전에 대한 신학자 편에서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이러한 질문들을 고찰한다.

##### 1. 가톨릭의 폭거와 2차 전쟁 발발

1566년 네덜란드에서는 귀족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종교개혁을 요구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성상파괴 운동이 일어났다. 네덜란드의 혼란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필리페 2세는 1567년 네덜란드 총독으로 알바 공작을 보냈다. 알바공은 왕의 이복 누이인 파르마 마가렛의 뒤를 이어서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는 독일 개신교 연합인 슈칼칼텐 연맹에 대항하여 승리하여 이름을 알린 후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인물이었다. 알바는 질서를 회복하라는 필리페의 명을 받들어 성상 파괴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다. 그는 반란위원회(Raad van beroerten)를 세우고 처형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피위원회(Bloedraad)라 불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닥치는대로 불러들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전의 재판체제를 대체했으며 얼마 안있어 귀족들이 이 위원회를 떠나

31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77f.

자 알바 홀로 처리했는데, 심의도 없고, 항소도 없고, 취소되지 않는 판결로 악명이 높았다. 알바의 폭정으로 6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가혹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알바 공작이 네덜란드로 올라갈 때 필리페 2세는 무려 10000명의 군대를 보냈다. 북부 이탈리아를 지나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선을 따라 네덜란드로 올라갔다. 이 놀랍고도 무서운 광경은 삼시간에 프랑스와 독일에 퍼졌다. 프랑스 개혁파의 지도자 콩데는 평화가 깨어지고 가톨릭이 다시 세력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고 어린 왕과 메디씨를 손에 넣기 위해 모(Meaux)에서 공작을 단행했으나 실패했다. 님(Nîmes)에서 흥분한 위그노들이 24명의 가톨릭 사제들을 죽였다. 이렇게 위그노 2차 전쟁이 발발했다.

## 2. 프리드리히 3세의 전쟁 해석

프리드리히 3세의 서신을 정리하고 그의 전기를 저술한 클루크혼은 프랑스 통치자들이 스페인과 교황과의 영향을 멀리하면서 개혁파를 관용하고 그로 인해 평화가 유지되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개혁파 편에서 프랑스 왕실의 책임을 지적하고 무기를 든 위그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즉, “그러나 알바가 프랑스 국경을 넘어 행군을 끝내고 네덜란드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위그노 지도자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sup>32</sup> 물론 왕실 편에서 볼 때 위그노는 반역자들이었다.

전쟁 후 프랑스에서 양 편의 특사가, 즉, 위그노 편에서 하이델베르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콩데공의 특사가 왔고, 프랑스 왕실도 특사를 하이델베르크에 보냈다. 왕실의 특사는 위그노는 반역자이며 위그노에게 종교가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sup>33</sup> 이 약속을 반긴 선제후는

32 “Aber kaum hatte Alba seinen Zug an der Grenze Frankreichs vorüber beendet und sein blutiges Werk in den Niederlanden begonnen, als die Führer der Hugenotten sich gedrungen sahen, zu ihrer Selbstvertheidigung die Waffen zu ergreifen.” A. Kluckhohn, *Friedrich der Fromme Kurfürst von der Pfalz, der Schützer der reformierten Kirche* (Nördlingen, 1879), 320.

33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67.

출레거(Zulgerger)를 파리로 보내 직접 왕실의 의견을 듣게 했다. 출레거는 파리로 가서 그 약속이 불확실한 약속임을 확인했으며 오히려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오는 길에 들러 콩데공의 진영으로 와서 진상을 파악했다. 출레거는 위그노의 무력저항이 왕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기즈에 대한 방어라고 확신했다. 프리드리히 3세와 카시미르는 콩데가 전해준 것을 따라 전쟁을 해석했으며 제국의 황제 특사에게 준 서신에 반역은 없고 “모든 잘못된 기독교를 비참하게 박해하고 섬멸전을 준비한 로레인 추기경에게 있게 됩니다”라고 썼다.<sup>34</sup>

### 3. 요한 카시미르(Johann Casimir von Pfalz-Simmern, 1543-1592) 참전 동기

클루크혼은 당시 나이 스물 네 살 이란 카시미르의 어린 나이를 강조하며 “위그노를 위한 이기심없는 열심”보다는 “불안하고 활동적인 성격에 기인한 충동”이 동기일 것이라고 추정한다.<sup>35</sup> 클루크혼처럼 다른 역사가들도 카시미르의 동기를 기회주의, 모험을 좋아하는 과격한 성격, 야망 등에 돌린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추정이 너무 단순하다고 평가하고 개혁신앙을 위한 카시미르의 지속적인 헌신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36</sup>

서신에서 카시미르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참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셋째 박해받는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넷째 프랑스 왕권의 보호를 위해서 참전한다.<sup>37</sup> 첫째 이유가 근원적인 동기 또는 먼 원인이며 넷째

34 “Alle Schuld wird auf den Cardinal von Lothringen geschehen, welcher die Christen jämmerlich verfolge, zu einem Vertilgungskrieg rüste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149.

35 “Casimir zählte erst 24 Jahre, als er, vielleicht weniger aus uneigennütziger Begeisterung für die Hugenotten, als unter den Antrieben einer unruhigen thatenlustigen Natur ...” Kluckhohn, *Friedrich der Fromme Kurfürst von der Pfalz*, 320.

36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97f.

37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200f.



이유는 반란자들인 위그노와 함께 한다는 비판에 대한 답의 성격이다. 그렇다면 평화의 회복과 프랑스의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다는 셋째와 넷째 이유가 실제적이고 대표적인 동기가 될 것이다.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참된 기독교 신앙고백자들을 말살하는 일에 반대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참전 이유를 밝힌다.<sup>38</sup> 따라서 공식적인 참전 동기를 본다면 “참전하기로 한 Casimir의 결정이 종교적 신념 외의 다른 어떤 것에 기초했다고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 없다.”<sup>39</sup> 그러나 이제 소개할 당대의 다른 시각과 함께 이 동기를 평가해야 한다.

#### 4. 신학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의 시각

카시미르 당대로 돌아가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신학자의 눈에 이 참전이 어떻게 보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초안을 작성했던 팔츠의 중요한 신학자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프리드리히 3세 및 팔츠의 지도부와 생각이 달랐다.<sup>40</sup> 클루크혼은 프리드리히 3세의 서신교환을 정리하면서 책 마지막 부분에 누락된 서신들을 추가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우르시누스의 서신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서 우르시누스는 참전을 결정한 팔츠의 권력층을 강하게 비판한다. 우르시누스는 무엇보다 팔츠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교리에서 멀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가장 먼저 평화보다 전쟁에 몰두하는 팔츠의 교회위원회(Kirchenrat)를 비판한다. “무기가 아니라 기도와 순교로 싸우는 것이 저들에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참여한 전쟁은 항상 불행했습니다.”<sup>41</sup> 프리드리히 3세가 1560년대 초에 전쟁을 반대하던 그 논리 그대로

38 “... gegen die jämmerliche Verfolgung und die drohende Ausrottung der Bekenner des wahren christlichen religion, zur Wiederherstellung der Autorität des früher erlassenen Pacificationsedicts und zur Erlangung eines Religionsfriedens, der Frankreich vor inneren Kriegen und Empörungen sicher stelle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141.

39 “There is nothing here to suggest that Casimir’s decision to intervene was based on anything other than religious conviction.”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99.

40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72.

우르시누스는 전쟁을 반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르시누스가 볼 때, 프리드리히 3세와 팔츠 지도부가 참전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아들[카시미르]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참된 열심히 아니라 악함으로 프랑스 전쟁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실 것이고 성과도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sup>42</sup> 여기서 우리는 카시미르의 참전이 순수한 그 개인의 결정과 그것을 승인하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그림이 아니라 팔츠 지도부 전체의 결정, 특히 교회위원회까지 승인한 결정이라는 우르시누스의 판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아들을 위대하기 만들기 위해서”다. 즉, 프리드리히 3세와 팔츠의 지도부는 프랑스 참전이란 기회를 통해 카시미르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 것이다.

우르시누스는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박해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감수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여 계속 실행되어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나라에 있는 박해와 전복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을 시험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숫자는 멸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sup>43</sup>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전쟁이 아니라 인내, 기도, 궁극적 해방에 대한 소망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나라가 멸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운명적인 결정들에 맞서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쁘게 오시는 것과

41 “... cum illorum proprium sit precibus et martyrio, non armis, pugnare; semper bella infausta fuisse, quibus ecclesiastici se immiscuerunt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1054. 1568년 3월 26일 우르시누스는 이 편지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프리드리히 3세에게 전달했다.

42 “Et si verum dicendum est, nos magis vitio quam vero zelo ad bellum Gallicum pertractos, filium groß zu machen, quod deus improbat nec successum dat.”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1054.

43 “Gegen die göttliche Vorsehung, wird dann weiter ausgeführt, vermag der Mensch nichts. Verfolgungen und Umwälzungen in den Reichen sind von Gott, nach seinem gerechten Urtheil, um die Auserwählten zu prüfen, die Gottlosen zu züchtigen. Eine bestimmte Zahl ist zum Untergang be stimmt. Diesen Beschluß Gottes kann Niemand umstosz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1054.

악한 것들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을 열망해야 합니다.”<sup>44</sup>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팔츠의 참전 결정을 나쁜 결정으로 보고 반대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란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므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순교를 당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프리드리히 3세도 위그노 1차 전쟁까지는 이러한 우르시누스의 생각과 같았으나, 2차 전쟁 발발 후 생각이 바뀌어 참전을 승인하게 된다. 이 글의 다음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 더 다루어보기로 한다.

### 5. 프리드리히 3세가 바라본 정세: 가톨릭 모의설(Catholic Conspiracy)

참전에 대한 우르시누스의 비판에는 영적 싸움은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은 1561년 위그노 콜리니에게 주었던 프리드리히 3세의 말과 같다. 참전을 승인한 프리드리히 3세가 제국의 황제와 제후들의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비판도 4년 전 프리드리히 3세의 말이었다. 황제와 제후들에게는 슈말칼덴 내전을 치룬 후 이제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 안에 있는 제국의 평화가 참전의 영향으로 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1568년 1월과 2월 풀다(Fulda)에서 있었던 제후회의에서 팔츠 대표단은 카시미르의 참전으로 갈등이 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sup>45</sup> 이 비판은 1563년 프리드리히 3세가 볼프강의 참전을 반대할 때의 이유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3세는 이전에 자신이 참전을 반대했던 바로 그 이유들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전쟁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고 참전을 결정한 프리드리히 3세의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위그노를 동정하면서도 여러 번 참전을 반대했던 프리드리히 3세의 생각이 변한 이유는 곳곳에서 감지되던 로마 가톨릭의 세력 확장이다. 위그노 전쟁은 프랑스 내부의 문제에서 국제적인 문제

44 “... quia in extremis temporibus versamur, ubi omnia regna ad interritum fluunt, non debemus nos fatalibus dispositionibus opponere, sed patientia et precibus ipsius laetum adventum et aeternam liberationem a malis exoptare.”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1055.

45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98.

가 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 여러 곳에서 감지되던 반종교개혁을 위해 연합하는 가톨릭에 대한 공포였다. 19세기 역사가 클루크혼은 이렇게 기록했다.

한편, 이 무렵 독일에서는 전면적인 교황 복원 계획에 대한 소문이 가득 차올랐다. 몇 년에 걸쳐 우리는 가톨릭 성직자들을 보게 되는데, 각 주교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을 가지고 전면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의 행위, 트리엔트 법령의 유혈 집행, 마지막으로 스페인-이탈리아 군대를 이끌고 온 알바의 접근에 대해 들었다. 프로테스탄트를 말살하려는 교황의 거대한 연합을 지금 의심해야 하는가?<sup>46</sup>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부터 잔인한 학살을 당했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에 살던 주민들은 알바의 군대가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 군대는 어디로 향하는가? 지금은 네덜란드를 향하지만 후에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러한 소문은 함께 자라나서 가톨릭 세력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개신교를 없앨 것이라는 가톨릭 모의설(Catholic Conspiracy)이 퍼지기 시작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협력하여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개신교를 몰아내고 있으며 이제 독일과 영국을 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 모의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신교인들의 공포에 기인한 상상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지만, 모의설의 실제 여부를 떠나 이 가톨릭 모의설이 당시 개신교인들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졌고 독일의 여러 개신교 제후들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위그노 전쟁을 바라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sup>47</sup> 개신교인들 사이에

46 "Dagegen fanden um diese Zeit die Gerüchte von allum fassenden päpstlichen Restaurationsentwürfen in Deutschland fruchtbaren Boden. Seit Jahr und Tag sah man den katholischen Klerus, einzelne Bischöfe voran, mit einem früher nicht wahrgenommenen Selbstgeföhle auftreten; man hörte von dem Vorgehen Spaniens in den Niederlanden, von der blutigen Ausführung der Tridentiner Beschlüsse und endlich von dem Herannahen Albas mit seinen spanisch-italienischen Kriegsschaaren. Sollte man jetzt noch an dem großen päpstlichen Bündnisse zur Vernichtung der Protestanten zweifeln?" A. Kluckhohn, *Friedrich der Fromme Kurfürst von der Pfalz*, 319.

47 Van Tol은 모의설 실재를 지지하는 주장자로 N.M. Sutherland를 들며, The Huguenot

퍼져있는 반가톨릭, 반스페인 정서는 들려오는 소문들과 함께 엮여지며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여 하나로 맞서야 한다는 정서가 되어 갔다. 프리드리히 3세는 가톨릭 모의설의 위협을 실제로 받아들였으며 제후들에게 경고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행해지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또한 프랑스에서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부터 의심의 여지없이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며 교황과 그의 잔혹과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우리 독일의 선제후와 다른 제후들이 마지막 이 될 겁니다.”<sup>48</sup> 팔츠 선제후의 판단에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교황에게 반대하는 독일인들에게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로마 가톨릭의 군사적 위협이 독일 개신교 제후들에게 현실이었다는 사실은 위그노를 위하여 참전하거나 동정한 제후들이 대부분 독일 서쪽의 제후들이었다는 점이 말해준다. 동부의 작센 선제후 아우구스트는 가톨릭의 모의설에 설득되지 않았고 작센 바이마르의 요한 빌헬름은 루터파였음에도 프랑스 왕실을 위해서 참전했다. 반면 서부 츠바이브뤼켄의 볼프강 같은 경우 독일 내 개혁파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자였음에도 오히려 제국 밖의 개혁파 위그노를 위하여 참전하여 전사했다. 알바의 군사행진과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행해지는 로마 가톨릭의 폭정 소식을 가까에서 들었던 독일 서쪽 지역의 제후들에게 가톨릭은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프리드리히 3세가 위그노 2차 전쟁에 이르러서 참전 승인으로 변화한 결정적 원인은 점증하는 로마 가톨릭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1561년 위그노 지도자 콜리니에게 보낸 편지에

---

Struggle for Recogn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반대자로 Malcolm Thorp을 든다. “Catholic conspiracy in early Elizabethan foreign policy,” 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15 (1984), 431-448;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68. Van Tol은 당대에 나온 가톨릭 모의설에 관한 인쇄물을 종합 분석하여 모의설이 유럽에 특히 독일에 얼마나 득세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48 “was bißhero in den Niederlanden furgangen und getrieben worden [und noch, das sollich] auch in Frankreich [mit der that will ins werk gericht werden, von dannen es sonder zweifel auch an andere gerathen und wir die chur- und fursten auch andere stende Teutscher nation, so dem bapstumb, seinen greuweln und abgöttereyen widersprechen, nicht die letzten sein möchten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105.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나라가 육신의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보존된다는 것이 프리드리히 3세의 초기 판단이었으며, 나아가 정치외교적으로는 참전이 제국의 평화에 위협에 빠트릴 것이라고 처음에 판단했었다면, 2차 전쟁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박해와 참상을 확인한 후 또한 로마 가톨릭의 무장 행진을 확인하면서 제국의 개신교에 큰 위협이 닥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프리드리히 3세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전쟁의 책임은 잔인한 기즈 가문에 있으며, 신앙적으로는 가련한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제국에 닥칠 위협을 미리 차단하고자 참전을 승인했던 것이다. 물론 앞서 우르시누스의 판단에서 본 것처럼 프리드리히 3세의 판단과 다른 판단도 있었다.

## 6. 프리드리히 3세의 개신교 국제 연합체 결성 시도

가톨릭 모의설이 당시 얼마나 실제적 위협이었는데는 프리드리히 3세가 참전만 승인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을 반대하는 국제적 연합체를 구상했다는 사실이 보여준다. 1562년 프리드리히 3세는 영국 엘리자베스의 개신교 연대 제안을 거절했었다.<sup>49</sup> 그러나 이제 생각이 바뀐 프리드리히 3세는 개신교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을 위한 외교력을 확장해가는데, 팔츠의 외교 정책에서 특별히 영국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sup>50</sup> 영국의 엘리자베스는 1567년부터 스페인과 긴장이 고조되자 다방면으로 외교전을 펼치면서 프리드리히 3세와 논의했다. 케임브리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으며 이제는 하이델베르크 구약학 교수로 있던 트레멜리우스가 가교역할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개신교 제후들과 비공식 동맹에서 화고한 공식 동맹 협약을 하기를 원했다.<sup>51</sup> 1569년 9월 에르푸르트 회의에서 팔츠의 총리 크리스토프 에헴(Christoph Ehem)은 개신교 제후들에게 영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제후들도 개신교 연대를 통한 평화 유지에

49 Thomas, *A house divided : Wittelsbach confessional court cultures in the Holy Roman c. 1550-1650*, 143.

50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69f.

51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89.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위그노와 네덜란드 칼뱅주의까지를 포함하는 연대는 루터파 제후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의 대표단이 국제 연합과 위그노 지원에 반대하면서 프리드리히 3세의 기대는 무너졌다.<sup>52</sup> 프리드리히 3세는 이후 루터파 제후들의 승인없이 홀로 영국과 관계를 지속했으나 확고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볼가스트는 결렬 이유를 주된 관심사의 차이로 돌린다. 즉, 영국의 주된 관심사는 정치적 이익이었다면 프리드리히 3세의 연합의 주된 목적은 개신교 신앙고백의 강화였다는 것이다.<sup>53</sup>

참전 승인만이 아니라 프리드리히 3세의 외교정책도 루터파 제후들의 비판을 받았다. 에르푸르트 시도를 무산시켰던 작센의 아우구스트는 프리드리히 3세가 추구하는 국제적 연합이 도리어 평화를 깨트릴 뿐이라고 지적했다.<sup>54</sup> 아우구스트는 위그노가 개혁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만 동맹 형성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개신교 동맹 자체가 평화를 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프리드리히 3세에게 호의적이었던 루터파 헤센의 빌헬름도 국제연합을 추구하는 프리드리히 3세를 이해하지 못했다. 헤센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그 나라의 짐을 주신다. “지금 온 세상의 짐을 지는 것은 참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것이 참으로 사실이다.”<sup>55</sup>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팔츠 너머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개신교 연대 활동을 이어가는 프리드리히 3세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프리드리히 3세의 활동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자기 통치지역이 있는 제후로서 황제와 제국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포악한 압제자들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일이 기독교인인 제후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sup>56</sup>

52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70;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189f.

53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70.

54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71;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586.

55 “Nun ist gewißlichen wahr, das Christo dem hern als wahren Gott und menschen einzig ist muglich gewesen, der ganzen welt last zu trag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2, 871.

56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71f.

## 7. 갑작스런 휴전

여러 비판을 감수하고 카시미르는 참전했다. 1567년 11월 카시미르는 약 11000명(이중 8000명은 말을 탔다)의 군대와 함께 프랑스로 들어가서 폰타무송(Pont-à-Mousson)에서 콩데와 합류했다.<sup>57</sup> 가는 길에 그는 다시 프랑스 왕실에 편지를 보내 어떤 사적 이익이 아니라 동료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휴전으로 샤프트르(Chartres)에서 포위를 도운 것 외에 눈에 띄는 전투를 치를 기회가 없었다. 1568년 3월 롱주모(Longjumeau) 평화 조약으로 갑작스럽게 전쟁이 끝났고 카시미르는 팔츠로 돌아와야 했다.

## V. 위그노를 위한 프리드리히 3세의 활동

프리드리히 3세는 참전을 제외하고도 위그노를 위해 여러 활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외교적으로 위그노를 위해 여러 활동을 했는데, 특히 루터파 제후들에게 위그노의 형편을 이해시키고 위그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위그노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 추구

프리드리히 3세는 위그노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알리려고 했다. 그는 위그노에 유리한 대로 상황을 설명하기 보다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제국의 제후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예를 들어, 바시(Vassy)의 학살을 설명하면서 프리드리히 3세는 위그노가 기즈가 보낸 사람을 공손히 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sup>58</sup> 당시 위그노를 지지하는 많은

57 A. Kluckhohn, *Friedrich der Fromme Kurfürst von der Pfalz*, 324.



글에서 위그노가 예의를 다해 기즈 일행을 맞이했으나 부당한 학살을 당했다고 선전했지만, 프리드리히 3세는 그러한 선전을 따르지 않는다. 기즈가 한 귀족을 보내어 설교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위그노가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위그노는 기즈 일행을 불손하게 맞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프리드리히 3세는 기즈가 폭력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힌다.<sup>59</sup> 또 다른 편지에서 프리드리히 3세는 기즈가 밝히는 학살의 명분을 소개한다. 즉, 위그노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으며, 쌓아놓은 돌을 던졌으며 기즈 자신도 머리에 돌을 맞아 다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프리드리히 3세가 볼 때 이 이유로는 학살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정말 악한 일이었다.<sup>60</sup> 이처럼 프리드리히 3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으며 그것을 루터파 제후들에게 전달할 때 일방적으로 한 편만 들어서 소개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납득할 만하게 묘사하려고 했다. 2차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특사로 출레거(Zuleger)를 파리로 보내 직접 상황을 살피게 하고 프랑스 왕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후에 위그노 진영에도 들러 콩데공의 이야기기도 들어보게 하였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며 왜곡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전달하려는 모습으로 제국 내에서 신뢰할 만한 뉴스 제공자의 역할을 했다.

## 2. 위그노 신앙의 진실성 호소

프리드리히 3세는 박해받는 위그노 신앙의 진실성을 알리려고 했다. 프리드리

58 1562년 4월에 헤센의 필립공에게 쓴 이 편지에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의 판단만이 아니라 라인백작 필립(Rheingraf Philipp)의 보고를 그대로 첨부한다. 당시 독일 제후들은 자신이 받은 보고와 뉴스를 그대로 필사하여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클루크호른에 의하면 이 첨부에 나오는 '위그노'(Jugenos)가 독일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268.

59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268f.

60 "...es weren solche böse buben, die seiner frau mutter ... schmechlich und übel nachgeredt und heten zu irer predigt ein scheur gebaut mit doppeln gengen und die mit stainen belegt, zur wehr ... wie dann er der herzog selbs mi ainem stain auf den kopf troffen und verwundt worden. Es wirdt sich aber schwerlich verantworten lassen: die that ist zuvil böß."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276.

히 3세는 위그노의 신앙의 진실성을 높이 평가하여 핍박받는 이유를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에 둔다. “그들이 독일인들보다 더 진지하며 그래서 그들이 핍박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sup>61</sup> 프리드리히 3세와 견해를 공유한 카시미르는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있는 박해에 관하여, 저들이 분파요 이단으로 불리는 것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자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교리가 분파로 정죄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야말로 참된 신앙에 속한 자들이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변호한 이들입니다”라고 한다.<sup>62</sup> 교황이 행하는 일을 볼 때에 개신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교황이 실상 자신이 가장 많은 오류와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분파와 이단으로 정한 이들을 불과 칼로 박해했습니다.”<sup>63</sup> 사실 루터파도 이미 교황에게 정죄되어 박해를 받았는데 같은 개신교 안에서 이런 정죄가 있음을 안타까워한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현존의 방식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중요 부분에서 일치했습니다.”<sup>64</sup> 카시미르는 그들이 츠빙글리주의자나 칼뱅주의자라는 분파로 불리는 자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정죄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sup>65</sup> “칼뱅주의자나 츠빙

61 “So kan ich leychtlich glauben, das inen mehr ernst sehe als uns Deutschen, demnach sie in der persecution ... bestanden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210; Van Tol, *Germany and the Coming of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21.

62 “... mehrern Theils und zum öftern viel christliche und gottselige Leute und ihre Lehre für Sectirer und Secten ausgeschrien, verfolgt, und umgebracht, die doch der wahren christlichen Religion anhängig, die besten Christen waren und die Wahrheit lehrten und vertheidigt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627.

63 “Und der Papst hat bisher alle diejenigen, welche er für Sectirer und Ketzler hielt, mit Feuer und Schwert verfolgt, obwohl er selbst auf's höchst mit Irrthümern behaftet ist.”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627.

64 “Luther und Zwingli haben sich, abgesehen von dem modus praesentiae des Leibs und Bluts Christi im Abendmahl, in allen hauptpunkten der christlichen Religion verglich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628.

65 “... solche Leute oder Lehre seien niemals auf einem ordentlichen unparteiischen Concil oder durch eine Reichsversammlung und darauf beschlossenen und allerseits bewilligten Abschied condemnirt word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628.

글리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거스른 적이 없으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옛 기독교신앙과 사도신경과 네 개 공의회에 (이것들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기초했는데)에 호소합니다.”<sup>66</sup> 이렇게 독일의 개혁파와 프랑스 위그노는 함께 칼뱅주의자라는 악명으로 불리면서 정죄를 당했으며 독일 개혁파는 자신과 독일 밖의 개혁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다고 그 정당성을 호소했다.

### 3. 위그노 교리의 정당성 변호

프리드리히 3세는 위그노의 교리의 정당성을 변호하려고 했다. 1561년 11월 위그노 전쟁 발발 전에 프랑스의 개혁파에 대한 평가를 루터파 제후들에게 공유하면서, 프리드리히 3세는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프랑스 개혁교회가 우상숭배의 가증한 것에 벗어났으며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sup>67</sup> 특히 성만찬 교리와 관련하여 위그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은 제국 내에서 쉽지 않고 예민한 문제였다. 프리드리히 3세는 위그노 교리가 독일 개신교와 아무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에는 성만찬 교리의 분명한 불일치가 있었다. 이것은 수면 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며 많은 이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와 선제후령 팔츠에서 루터파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쫓겨났다. 루터주의로 단결했던 제국의 개신교 제후들이 제국의 일치를 깨트리는 칼뱅주의에 적대적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어서 나사우의 요한도 독일 제후들 대부분은 칼뱅주의에 특별히 적대적

66 “... diejenigen, die man Calvinisten oder Zwinglianer nennt, haben niemals der A. C. widerfochten und sich immer auf Gottes Wort, den uralten christlichen Glauben, die alten Symbola und die vier hauptconcilien, darauf denn auch die A. C. gegründet, beruf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628.

67 “Von den predigten in Frankreych ways ich nit zeugnus zu geben’ ‘das die reformirten kirchen von allem greuel der abgotterey aufgesegt, und die lehr dem worth gottes gemess gehen soll.”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1, 210; Van Tol, *Germany and the Coming of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19.

이며 반대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공유한다.<sup>68</sup>

위그노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루터파 제후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위그노를 바른 길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루터파의 참된 교리를 가르쳐서 개혁파로부터 멀리하게 해야 한다고 츠바이브뤼켄의 볼프강은 적고 있다.<sup>69</sup> 그러나 프리드리히 3세와 하이델베르크의 사람들이 위그노의 성만찬론을 옹호하자 볼프강은 “하이델베르크 의회가 열심히 프랑스의 새로운 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살피고 좋다고 승인했으며 칭송하기에 열심이었다”라고 보고하며<sup>70</sup> 프랑스 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칼뱅주의와 츠빙글리주의의 고백서라고 규정한다.<sup>71</sup> 볼프강은 하이델베르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서의 주의 만찬 교리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밝혔다. 프리드리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위그노에게서 이단적인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다고 루터파 제후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보고에서 프랑스 교회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조금의 의견차이도 없고 나아가 어떤 분파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알지 못합니다.”<sup>72</sup> 이러한 설득이 루터파 제후들에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팔츠 스스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후 성만찬 교리의 불일치 때문에 제국 내에서 고립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 내 개신교 제후들이 팔츠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는 교리의 일치를 인정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68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73.

69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74.

70 “... die Heydelbergischen rätthe mit sonderem fleis dahin gearbeitet, die Confession und scripta der neuen kirchen in Frankreich durchaus für just zu halten und hochzuruemen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434.

71 “... solche confession und scripta dem Calvinismo und Zwinglianismo beifahl geben und unser christlichen Augspurgischen confession warhaftige meinung de coena domini offentlich damniren ...”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434f.

72 “So hab ich bis anhero in allen berichten nie anders verstanden, dan das die Franzosischen kirchen durchaus in causa religionis aynig und den wenigsten misverstandt under ayn ander nitt hetten, vil weniger sich aynischer secten beglagten.” A. Kluckhohn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Bd. 1, 292.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제국 밖 칼뱅주의 위그노의 교리가 제국의 개신교와 일치한다는 프리드리히 3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루터파는 위그노에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거나 성만찬 교리의 불일치가 위그노 지지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다.<sup>73</sup>

#### 4. 출판물을 통한 위그노 지지

프리드리히 3세는 여러 출판물을 통해서 위그노를 지지하고 위그노 상황을 제국 내에 알렸다. 1562년 위그노 1차 전쟁 발발 후 콩데공이 왜 무력저항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인쇄물이 두 번에 걸쳐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왔다.<sup>74</sup> 판들은 1560-70년대에 독일에서 인쇄된 위그노 전쟁 관련 인쇄물을 정리했는데 위그노 학살과 이에 따른 무력저항이 일어난 1562년에만 27개의 인쇄물이 나왔는데, 도시 이름을 밝힌 인쇄물은 14개이며 이중 13개가 하이델베르크의 지명을 넣었다.<sup>75</sup> 프리드리히 3세가 통치하던 시기 하이델베르크의 위그노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보여준다.

팔츠의 개혁파는 제국 밖에서 박해받는 위그노와 제국 내에서 고립되는 자신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예를 들어, 제네바 교회법이 프랑스 교회법으로 소개된 일화에서 알 수 있다.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인쇄한 이후 프리드리히 3세는 개혁교회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1563년 11월에 나온 팔츠의 교회법은 제네바의 영향을 받았는데, 칼뱅주의로 낙인찍히고 정당성을 의심받는 팔츠로서는 제네바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힐 수 없었다.<sup>76</sup> 팔츠는 비난을 피해가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신을 가진 요리문답서와 교회법이 있음을 알려야

<sup>73</sup>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77.

<sup>74</sup> *Erste Erklärung und bericht des Durchleuchtigen Hochgebornen Fürsten un[d] Herren, Herrn Ludwigen Hertzogen von Borbon, Herrn von Conde* (Heidelberg: Ludwig Lucius aus der Wetterau, 1562); *Louis de Condé, Andere erklärung des Hertzogen von Conde* (Heidelberg: Ludwig Lucius aus der Wetterau, 1562).

<sup>75</sup> Van Tol, *Germany and the Coming of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9.

<sup>76</sup> J.F. Gerhard Goeters,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XVI. Jahrhunderts*, ed., Emil Sehling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69), 44-45.

했다. 올레비아누스는 칼빈에게 제네바 교회법이 독일어로 인쇄된다고 보고한다. “당신의 요리문답이 며칠 안에 나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 의해 잘 번역된 독일어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 성례의 실행방식과 기도 등이 추가됩니다. 모든 것이 신실하게 고려되어서, 독일 사람들이 읽는 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과 당신들의 도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곧 프랑스 개혁교회 전체에서 행해지는 방식: 성찬의 실행, 혼인, 기도, 요리문답 등이다. 요리문답의 명칭: 프랑스 교회의 요리문답”<sup>77</sup> 이 언급에서 칼빈과 제네바가 독일에서 얼마나 의심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네바, 하이델베르크, 프랑스 개혁교회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후 실제로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랑스 개신교회의 법이 출판되었다.<sup>78</sup> 이 출판물의 서문에서 박해받는 위그노를 묘사한다.

#### 기독교 독자에게

친애하는 기독교 독자여, 최근 몇 년 동안 사악한 마귀가 프랑스에서 수천 명의 수많은 기독교인을 왜 살해하고 죽였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이 교회법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것은 프랑스어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신뢰할만하게 독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대는 이로부터 사탄이 그곳에서 격노하고 고통을 지르는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77 “Catechismus tuus germanice prodit hisce nundinis bene conversus a Zacharia Urssino, qui me facultate linguae superat. Addita est ratio administrandi sacramenta, preces etc. Omnia fideliter sunt reddita, verum non addito nomine tuo aut urbis vestrae, ne Germani lectionem recusent, sed eius loco fecimus titulum: Forme receue par toutes les eglises freformees en France en ladministration des sacraments, mariage, prieres, catechisme etc. Et ainsi le catechisme a le tiltre: Catechisme des Eglises de France.” CO 19, 684f.

78 *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Franckreich / so Gehalten Wird / im Gemeinen Gebet / Reichung der Sacrament / Eingesegnen der Ehe / Besuchung der Krancken / Und Christlichen Catechismo* (Heidelberg: Johannes Mayer, 1563). 책 제목을 번역하면 “프랑스 개신교회 질서. 다음의 내용에서 행해지는 방식, 곧 공동 기도, 성례의 실행, 혼인 예식, 환자 방문, 기독교 요리문답”. 같은 해에 제네바 요리문답서도 독일어로 번역되었는데, “프랑스 개신교회의 요리문답서”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Catechismus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Frankreich* (Heidelberg, 1563).

의심없이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지함과 열심으로 이 교회법이 유지되고 실천된다면 사탄의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sup>79</sup>

올레비아누스가 언급한 대로 이 출판물이 이후에 올 팔츠 교회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서문은 프랑스의 위그노에 대한 부당한 박해를 알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만들었고 이제 개혁교회법의 반포를 앞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서문이 암시하는 바는 프랑스 위그노가 부당하게 박해 아래 있듯이 하이델베르크도 부당한 압력 아래 있다는 것이다.

## 5. 신앙 난민 수용

프리드리히 3세는 신앙 때문에 고향과 집을 잃은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위그노도 있었다. 네덜란드 신앙 난민들이 프랑켄탈에 왔을 때 선제후가 직접 나가 맞이할 정도로 선제후는 개혁파 난민들을 동정했다. 난민들에게 처음에는 어거스틴 수도원을 숙소로 제공했는데 여기서부터 생겨난 도시가 현재 독일의 프랑켄탈(Frankenthal)이란 도시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난민들도 하이델베르크로 왔으며 1569년 즈음부터 위그노와 왈론 난민들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의실을 제공받아 프랑스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의학 교수로 재직하던 찬키우스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의 네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 후에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Franciscus Junius)가 부르주에서 하이델베르크로 왔을 때 이 교회에 출석했

79 "An Christlichen Leser. Christlichen lieber Leser / wilt du wissen warumb der böse Feind in kurtzen jaren so vil tausendt Christen in Franckreich jämmerlich ermordet und umbracht hat/ so lese mit vleiß diese der verfolgten Christen daselbst Kirchenordnung / welche wirddit ausz frantzösischer Sprache auff's best und trewlichst / so möglich / verdeutscht haben. Darauß wirstu ohne zweiffel nugsam erlernen / dasz Sathan nicht geringe ursache hat / an diesen orten fürnemlich zu wüten und zu toben / da solche Kirchenordnung nicht ohne grösse gefahr und abbruch seines Reichs / mit Christlichem ernst und eiffer gehalten und getrieben wirdt" *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Franckreich*, 2.

으며 그의 딸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sup>80</sup> 1576년 프리드리히 3세가 죽고 아들 루트비히 6세가 개혁주의를 거절하고 루터주의를 들여오자 프랑스어 회중의 상당수가 프랑켄탈로 옮겨가서 그곳에 프랑스어 교회를 세웠다. 루터파 제후들은 팔츠 선제후가 제국에 칼뱅주의를 들여와서 퍼뜨린다고 불평했으나 프리드리히 3세에게 개혁파 신앙난민들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받는 의인들의 모습이었다.<sup>81</sup>

## VI. 나가며

우리는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작성을 지시하고 개혁주의를 팔츠 지역에 도입하여서 정착시킨 공헌으로 평가받는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심한 박해 중에 있던 프랑스 위그노를 지지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위그노 상황을 단지 프랑스 내의 종교개혁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관계 아래서 살펴볼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3세가 팔츠에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여 종교개혁을 실행하려고 할 시기는 위그노 1차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와 거의 맞물린다. 프리드리히 3세는 자신이 통치하던 팔츠가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면서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험담을 듣는 개혁파 위그노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제국 안에서는 루터파와 구별되는 개혁파의 독특성과 함께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에 머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 하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그노를 바라보았다. 제국 밖에서 위그노는 개혁파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었고 팔츠는 제국 안에서 개혁파 신앙이라는 이유로 고립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그노 전쟁은 프랑스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이 안타까움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향한 위협으로

80 Andrew L. Thomas, *A house divided : Wittelsbach confessional court cultures in the Holy Roman c. 1550-1650* (Leiden/Boston: Brill, 2010), 138f.

81 Van Tol,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77.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국 밖 프랑스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자신들이 참전한다는 생각은 제후들의 선택사항에 올라와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1567년에 발발한 2차 전쟁에는 독일 제후들이 참전하게 된다. 위그노 1차 전쟁에는 참전과 거릴 두던 프리드리히 3세가 위그노 2차 전쟁에 참전을 승인한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가톨릭의 폭거가 있었다. 네덜란드로 올라가는 알바의 군대 모습은 프랑스 위그노만이 아니라 독일 서부의 제후에게 미래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프랑스에서 위그노가 박해당하고 있었다면 네덜란드에서도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처형당하였고 귀족들도 포함되었다. 이 소식은 프리드리히 3세에게 개신교를 향한 가톨릭의 연합적인 폭거였다. 참전에 대해서는 신학자와 통치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3세의 참전 승인에 강하게 반대했던 우르시누스처럼 자기 영지 내의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통치자의 말에 언제나 힘을 실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서 프리드리히 3세는 가톨릭에 맞서고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개혁파 동료들을 보호하고자 넓은 개신교 연대를 꿈꾸었지만 실패했다. 프리드리히 3세의 외교정책과 참전 승인이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으나<sup>82</sup> 개혁파 신앙인으로 폄박받는 형제들을 위한 그의 헌신을 지우지 못한다. 신앙인으로서 그의 헌신과 개혁파 신앙인을 향한 동료의식은 팔츠를 넘어 여러 나라에 받아들여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가 받아들인 신학자들 및 다른 분야의 학자들의 지속적인 영향,<sup>83</sup> 프랑켄탈의 도시 형성을 통해 이후에도 계속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개혁파의 연대의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도르트총회(1618/19)는 개혁파의 국제적 연대의 절정을 보여준다.

82 Wolgast,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73.

83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 하이델베르크로 온 개혁파 학자들의 목록과 약력은 다음을 보라: Dagmar Drüll, *Heidelberger Gelehrtenlexikon 1386-1651* (Heidelberg: Springer, 2002). [목록], 593-597.

## [참고문헌]

- Barthold, Friedrich. *Deutschland und die Hugenotten*. Bremen: Verlag von Franz Schlotmann, 1848.
- Calinich, Robert. *Der Naumburger Fürstentag*. Gotha: Frierich Andreas Perthes, 1870.
- Catechismus Oder Christlicher Unterricht wie der in Kirchen und Schulen der Churfürstlichen Pfalz getrieben wirdt*. Heidelberg, 1563,
- Charles D. Gunnoe Jr., "The Reformation of the Palatinate and the Origi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00-1562." In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ed.,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신지철 역. "팔츠 선제후 령의 종 교개혁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기원 1500-1562".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19-89.
- Drüll, Dagmar. *Heidelberger Gelerhtenlexikon 1386-1651*. Heidelberg: Springer, 2002.
- Ernst, V. *Briefwechsel des Herzogs Christoph von Wirtemberg*. Bd. IV. Stuttgart: Verlag von W. Kohlhammer, 1907.
- Erste Erklärung und bericht des Durchleuchtigen Hochgebornen Fürsten un[d] Herren, Herrn Ludwigen Hertzogen von Borbon, Herrn von Conde, auß was ursachen ire F. G. die königliche Würden in Franckreich, deßgleichen die Regieru[n]g so der Königin zustehet, und dan[n] auch den gemainen friden un[d] rhu desselbigen Königreichs zuschützen und zuhandthaben ist bewegt worden : Sampt angehängter irer Fürstlich Gnaden Protestation*. Heidelberg: Ludwig Lucius aus der Wetterau, 1562.
- Goeters, J.F. Gerhard.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n Kirchenordnungen des XVI. Jahrhunderts*. Ed., Emil Sehling.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69.
- Grant, Alison & Ronaldo Mayo. *The Huguenots*. Longman, 1973. 조병수 역.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 용인: 가르침, 2018.

- Gray, Janet Glenn. *The French Huguenots Anatomy of Coura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Gunnoe, Charles D. Jr., “Die Geschicht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im Umfeld der Pfalz.” In *Handbuch Heidelberger Katechismus*, eds.. Arnold Huijgen & John V. Fesko & Aledida Sill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14.
- Gunnoe, Charles D. Jr., “The Reformation of the Palatinate and the Origi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00-1562.” In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ed.,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Heshus. *Bekantnuß vom Heiligen Nachtmal des Herrn Jesu Christi*. Nürnberg: vom Berg und Newber, 1560.
- \_\_\_\_\_. *Responsio Tillemanni Heshusii ad praejudicium Philippi Melancthonis*. Magdeburg: Kirchner, 1560.
- Hollweg, Walter. *Der Augsburger Reichstag von 1566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Entstehung der Reformierten Kirche und ihres Bekenntnisse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1964.
- \_\_\_\_\_. *Der Augsburger Reichstag von 1566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Entstehung der Reformierten Kirche und ihres Bekenntnisse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1964.
- Kluckhohn, A.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Kurfürsten von der Pfalz, mit Verwandten Schriftstücken*. Bd1. Braunschweig, C.A. Schwetschte und Sohn, 1868.
- \_\_\_\_\_. ed. *Briefe Friedrich des Frommen, Kurfürsten von der Pfalz, mit Verwandten Schriftstücken*. Bd2. Braunschweig, C.A. Schwetschte und Sohn, 1872.
- \_\_\_\_\_. *Friedrich der Fromme Kurfürst von der Pfalz, der Schützer der reformierten Kirche*. Nördlingen, 1879.
- Louis de Condé, *Andere erklärung des Hertzogen von Conde/ in welcher die anfänger und ursächer diser jetzigen empörung in disem Königreich Franckreich offenbaret: und was iren F. G. bißher zu hinlegung*

- derselben fürzunemen gebürt hat/ und noch gebüren will/ angezeigt wird.* Heidelberg: Ludwig Lucius aus der Wetterau, 1562.
- Melanchthon, Philip. *Iudicium de Controversia Coenae Domini*. Heidelberg, 1560.
- Neumüllers-Klausner. *Die Deutschen Inschriften Die Inschriften der Stadt und des Landkreises Heidelberg*. Stuttgart: Druckmueller, 1970,
- Neuser, Wilhelm. "Dogma und Bekenntnis in der Reformation," in *Handbuch der Dogmen-und Theologieggeschichte*. Bd. 2. Eds. Carl Andresen et al.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8.
- 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Franckreich / so Gehalten Wird / im Gemeinen Gebet / Reichung der Sacrament / Eingesegnen der Ehe / Besuchung der Krancken / Und Christlichen Catechismo. Heidelberg: Johannes Mayer, 1563.
- Press, Volker. *Calvinismus und Territorialstaat, Regierung und Zentralbehörden der Kurpfalz 1559-1576*.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70.
- Roelker, Nancy Lyman. *One King One Faith: The Parlement of Paris and the Religious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Strohm, Christoph. "Politik, Kirche und Universität zur Zeit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In *Handbuch Heidelberger Katechismus*, eds., Arnold Huijgen & John V. Fesko & Aledida Sill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14, 44-53.
- Sutherland, N.M. *The Huguenot Struggle for Recogn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Thomas, Andrew L. *A house divided : Wittelsbach confessional court cultures in the Holy Roman c. 1550-1650*. Leiden/Boston: Brill, 2010.
- Thorp, Malcolm. "Catholic conspiracy in early Elizabethan foreign policy," 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15 (1984): 431-448.
- Tol, Jonas van. *Germany and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0-1572*. Leiden/Boston: Brill, 2019.

- Tol, Van. *Germany and the Coming of the French Wars of Religion: Confession, Identity, and Transnational Rela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rk, 2016.
- Thomas, Andrew L. *A house divided : Wittelsbach confessional court cultures in the Holy Roman c. 1550-1650*. Leiden, Boston: Brill, 2010.
- Thompson, James Westfall. *The Wars of Religion in France 1559-1576*.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9.
- Visser, Derk. *The Reluctant Reformer His Life and Times*. New York: United Church Press, 1983.
- Wolgast, Eike. *Reformierte Konfession und Politik im 16. Jahrhundert: Studien zur Geschichte der Kurpfalz im Reformationszeitalter*.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1998.
- 류성민. 『멜란히톤, 칼뱅 그리고 위그노』. 용인: 가르침, 2021.
- 양신혜. “베자의 국가 저항권에 대한 이해”. 『갱신과 부흥』 24호(2019), 85-114.
- 이남규.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두 거장』. 서울: 익투스, 2017.

**[Abstract]**

**the Huguenot Wars and Friedrich III's support**

Nam Kyu Lee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The Reformation is often studied in isolation from its international connections, so its multilayered aspects need to be more noticed. To understand how the Reformation was connected internationally in the 16th century, it is useful to tra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guenots and the German Protestants. The internal conflicts in France in the 1560s coincided with the Empire's Protestant situation being complicated by the rise of the Palatinate reformed Reformers. Therefore,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rise of the Reformed in the Palatinate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Reformed within and outside the Empi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ntext of German Protestantism. At the center of all this is the Elector of the Palatinate, Friedrich III. His significance lies not simply in the fact that he was a Huguenot supporter as Elector of the Holy Roman Empire, meaning that the presence of such a high-ranking supporter of the Reformation within the Empire was a real boost for the Huguenots. Friedrich III is also significant in that his embrace of the Reformed complicated German-Huguenot relations because while previously Protestantism had only referred to Lutherans, there were now two kinds of Protestants in the Empire. In order to provide a more layered understanding of the Reform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se of the Reformed in the Palatinate, the outbreak of the Huguenot Wars and the Palatinate's involvement, and Friedrich III's support of the Huguenots.

**Key Words:** Friedrich III, Heidelberg, Huguenots, German Reformation, French Reformation, French Wars of Religion

